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강북신문

동북신문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5일 안전 처리후 9일간 일정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1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 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5일 열린 강북구의회제3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근성 의장.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 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 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그 밖에 이백균 의원이 발의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행정보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됐고, 이성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촉구 결의안'도 보류됐다. 김동식 의원이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케이블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의회개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수 의원은 자신이 장애인이고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의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파인트리 기부채납 재산건과 케이블카 유치촉구결의안은 보류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이성희 강북구의회 의원이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를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킨 뒤 장애인들도 북한산을 등산할 권리가 있어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며 이성희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선 의원은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에서 기대했던 경제활성화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산도 운영회사만 득을 보고 있다는 사례를 접했다며 강북구가 좀 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원들끼리 잠깐 정회 후 간담회를 가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케이블카 유치촉구 결의안은 보류되고 말았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 우이동 산 22-2 의 3필지 4,979㎡의 배수지 부지를 현재 권도를 짓고 있는 파인트리 측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강북구의 재산으로 받아주자는 것인데, 행정보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명심 행정보전위원장은 처음에 이 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밝혔다가 나머지 안전들이 모두 처리되고 산화하기 직전 뒤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명심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충분히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고, 곧바로 같은 행정보전위원인 김도연 의원이 나와 "파인트리의 호화콘도 건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의회가 배수지 부지를 구유재산으로 받겠다고 통과시키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유근성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재정을 받아 보류됐음을 선언했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서울포스트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1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

우이신설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통과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외 10인 발의...환승통로 신설 등 요구



강북구의회가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에 전 구간 상·하행선 환승통로 개설과 정거장 출입구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5일 제 1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백균 의원 외 10인의 의원들이 2014년 9월에 공사 준공을 앞둔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에 대해 출입구 위치 및 보행 불편사항에 대해 교통정책 및 집단민원의 야기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전 구간 상·하행선 환승통로 개설과 정거장 출입구 인접건물 매입으로 안전한 지상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백균 의원은 공사 중인 경전철 계획은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좁은 보도상에 설치하도록 설계되고 일부역사는 지하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환승통로를 신설하여 불편한 우회통행을 단속시켜 보행자 안전과 경전철 이용 편의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구는 그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사업의 조기추진을 수차례 건의하고, 지난해 초에는 범구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강북구 전체 가구를 초과하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청 방문시 직접 전달하는 등 지하경전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구간은 우이~신설동(11.4km) 정거장 13개소(강북구간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총사업비 6,465억원이며 민간자본 유치비율(민자 60%, 국비 12%, 서울시 28%) 승수능력 2량 278량, 좌석수 48석으로 2분 30초의 배차간격으로 성선역(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2호선)에서 환승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이백균 의원 발의로 주민불편 야기하는 시설개선 건의



이백균 의원

강북구의회가 현재 착공중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과 관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백균 의원(민주당) 외 10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현재 공사중인 경전철 계획이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좁은 보도상에 설치하도록 설계되고, 일부 역사는 지하에서 반대방향으로의 이동이 불

가능하게 설계돼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어 교통정책 불신과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경전철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하 상하행선 환승통로를 모든 정거장에 반영하여 줄 것과 보도상에 설치된 일부 출입구를 인접건물을 매입하여 사유지 안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표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은 강북지역의 교통난 완화뿐 아니라 북한산과 우이동 유원지 내방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은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 강북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구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최선 의원...약인지 독인지 알 수 있는 시간 필요
김도연 의원...파인트리 위한 배수지 아니다

강북구유치동 산21-2호 외 3필지 토지면적 4,979㎡ 추정가격 2억 6천 22만원의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5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이번에 취득하고자하는 이곳은 강북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북구로부터 토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물, 우이동, 이수동 등 도봉구 쌍문동 일원 약 2만 7천 세대에 비상에도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유배수지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명식 행정보건의료위원장은 "신중하게 토의하고 의원들의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본 회의에 상정

하게 됐다"고 했다.

김도연 의원은 "유치동 초하화론도 단지로 찬 반 여론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파인트리를 위한 배수지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보류를 제안하고 나섰다.

황학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에 나서 "비상시 안정적인 급수 시설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파인트리 공사와 배수지 공사 병행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행정보건의료위원회는 토지에 대해 기부 채납한 사유와 배수지 설치 공사 진행과 기부 채납으로 인한 우리구의 이점,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는지를 물었다.

구정 관계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시설로 해당 토지를 선정,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 토지의 소유자인 (주)파인트리에서 우리구로 무상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고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하에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하고 지상은 수목 식재와 주민휴식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예산 부담 없이 구유 재산의 증식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십여 시간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약인지 독인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 되었고 결국 보류 됐다.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결의안 보류

시급성 인정하지만 공청회 등 구민견문수렴한 결과에 따라 대처키로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유치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성희 의원.

북한산 케이블카를 우이동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의회가 이성희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집약된 결론을 갖고 결의하지는 의견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으로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성희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강북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한산 케이블카 노선을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우이동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강북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강남북권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설명에 대해 김동식 의원은 "환경단체 종교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양립돼 돼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문수 의원은 "다구로 해당길 상환이어서 시급성도 인정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열고 결론을 갖고 결의해야 효율성도 있고 윈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선 의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해 결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연령 의원발의 개정

박문수 의원 발의해 상임위 심의거쳐 5일 본회의 통과됨



4일 열린 행정보건의료위원회 회의에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한 박문수 의원(사진 왼쪽)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정 공무원들과 답변석에 앉아 있다.

강북구의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연령을 제한하는 조례가 구의원의 발의로 개정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5일 제146회 임시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18세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발의한 의원은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소속 박문수 의원(민주당)으로 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에 나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상한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기준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최선 의원(민주당)은 "조례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구정이 대응해 개선해야 했다"고 주장했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김동욱 의원)와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성비를(이종은 의원),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수당 퇴직금의 차이(김도연 의원) 등에 대해 집행부에 묻기도 했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해 의원발의조례로 기록된 박문수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연령을 개방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의원이 찾아서 개정한 조례로 '의회에서 열광했다니 한잔 티드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카 우이동유치 결의안 보류

5일 본회의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후 처리키로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유치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성희 의원.

북한산 케이블카를 우이동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의회가 이성희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집약된 결론을 갖고 결의하지는 의견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이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우이동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강북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

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강남북권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안설명에 대해 의원들은 "환경단체 종교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양립돼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문수 의원은 "다구로 해당길 상환이어서 시급성도 인정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열고 결론을 갖고 결의해야 효율성도 있고 윈도 받을 것"이라며 "의회에서 열광했다니 한잔 티드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구정질문 답변 요지

“의원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를 지역발전의 화두로”

제146회 강북구의회가 6대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펼쳐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28일 총12명 의원들의 다양한 구정 질문에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각 국장들은 29일 답변에 나섰다. 다음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답변 요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주차장 특별하게 예산 현황과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1개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소규모 주차장 건립계획(강남연, 이순영, 이백균)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70% 지원되며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승인 받아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억제하고 민간투자형 그린파킹 사업으로 유도 하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최근에는 1년에 5~6개 정도만 승인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아동 등축지역은 주차장 보급률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쉼터(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대책(강남연)

—노점상배치사를 통해 신규노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해 경감화 되고 소형화한 규격노점(가로 2m×세로 1.5m)을 제작하여 노점을 재배치하고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복을 착용하고 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점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추진 현황과 공사진행에 문제점, 조기완공 가능여부(이종순 의원)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음, 저진동 장비들 사용토록 하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1번 정거장과 2번 정거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가 보도상에 설치될 경우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1번역부터 8번역까지 출입구 위치를 인접 사유지 건물에 매입하여 설치하여 줄 것과 1번부터 5번 정거장까지 상·하행선을 임의로 선택 탑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금년 11월 중순경 서울시청 면담 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서물공의 물 자전기도로와 관련한 인원사항, 사고현황 및 구청의 대책과 관내 장애인 보행로 현황과 개선계획(구본승 의원)

—서울시 자전거 관리부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결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현수 92m를 제거하였으며, 현수가 남아 있는 일부 구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선유도봉 2~3개씩 설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보행에 불편한 횡단보도 및 보도 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이령 터널이 개통 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뿔레굴 경장비 보관소 이전대책(이성희 의원)

—우이령 터널은 양주시가 추진하는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시 우리구 접속도로에 급격한 정체현상으로 교통량 수용이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이 어려우



지난 28일 총12명 의원들의 다양한 구정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29일엔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답변에 나섰다.

며 우리구도 추진의사가 없으며 대체 검토안으로는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인 인수전과 배운천의 합류 북계 주차장 부지에 빙글리류수를 설치하고 시설에는 주차장 및 공원을 6,000㎡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상 부지 중 1,300㎡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관리과 차고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수의계약은 강북구내에 소재한 업체에 우선권을(박문수 의원)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계약 성격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내에 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 대책 및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간접규제 시행계획과,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촉구 서한 전달 계획(최선의원)

—중공시정에 임박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직접 피해가 미치는 상암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구적인 대형마트 입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물류센터 공동이용 방안 강구, 공간중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강북구 중소기업연합회 결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도봉세무서 뒤편 설치된 시설을 치우고 환원 가능한지(이종순 의원)

—관마를길 특화거리가 담조에 계획했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화거리 조성 후 이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사항 및 정비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

▲주민참여행사를 만들기 위한 제도마련이나 계획에 대해(구본승 의원)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와 하여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로명주소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였는지(이백균 의원)

—우리구의 부여된 전체 도로명은 로망 15개, 길급 603개가 있으며그중 도로명의 1개 도로명은 관역단체간 연결도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고 상암로외 7개 도로는 자치구간 연결도로로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였으며, 나머지 수유로의 4개 도로와 길급 603개는 우리구에서 결정·고시했다.

“상암로”는 성북구 길음동을 기점으로 우리구를 관통하여 우이동에서 끝나는 자치구간 연결도로에 해당되어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한 도로다.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의견수렴은 상암로를 포함하여 자치구간 연결도로는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 동안 하였고, 우리구에서 결정된 수유로 등 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0년 4월 26일부터 2010년 5월 9일까지 14일간 구 홈페이지, 구보, 구청계시판, 각 동주민센터에 게재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북한산 케이ابل 설치에 대한 계획과 방안(박성열 의원)

—최근 케이ابل가 설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과 설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난 9월 20일에 케이ابل가 허용길이 2km에서 5km로, 정류장 건축물 높이가 9m에서 15m로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ابل가 설치 추진용량과 우리구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겠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율율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와 발표되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상암동종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에 대해(이영심 의원)

—상암동 종합복지센터는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철저한 지도와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보급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프로그램 수급자가 타 문화센터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인근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비교하여 조정하도록 위탁운영체와 협의하여 추진 하겠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무료지원 확대방안에 대

하여(김동식 의원)

—월 건강보험료 8,000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강북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300여 가구에 대하여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다.

▲수유동 방향의 우이천변에 화장실 설치 여부(김도연 의원)

—공사중인 우이천이 자연현 전환권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는 내년 봄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와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기능 시설(보건지소 내지 분소)설치요구에 대한 구청 입장과 세 부추진 현황에 대하여(구본승 의원)

—미아동 복합청사에 보건 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업변경과 투자금액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투자자 심사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은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공간조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고 있다.

▲강북구의 혁신학교 유치는?(구본승 의원, 최선 의원)

—현재 혁신학교의 운영·지정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바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급변중 일선 교육자현황으로 기본계획서가 시달될 것으로 사료되며 강북구도 이러한 혁신학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혁신학교 강북구 유치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혁신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학부모,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최선 의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중에서 인권헌장법에서 설치된 자치단체가 없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많은 제정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답변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 고려”

지난달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 제 146회 강북구의회가 6대의회 개원 후 첫 국정질문을 펼쳐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12명 의원들의 다양한 국정 질문에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각 국장들은 지난달 29일 답변에 나섰다.

다음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답변 요지다.

질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황과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1개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소규모 주차장 건립계획(강남연 의원, 이순영 의원, 이백균 의원)

답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70% 지원되며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승인 받아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억제하고, 답장하물기 그랜파인 사업으로 유도하는 실정으로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최근에는 1년에 5~6개 정도만 승인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아역 동쪽지역은 주차장 보급률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소규모)주차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예산지원율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질문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대책(강남연 의원)

답변 ▶노점상대책을 통해 신규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해 경감화 되고 소형화된 규격노점(가로 2m×세로 1.5m)을 제작하여 노점을 재배치하고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복을 착용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점복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다.

질문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추진 현황과 공사진행에 문제점, 조기완공 가능여부(이준승 의원)

답변 ▶문정장과 2번 경전철의 출입구 및 환기구가 보도상에 설치될 경우 기존 보도폭이 좁아져 보행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1번이부터 8번이까지 출입구 위치를 인접 사유지 건물에 매입하여 설치하여 줄 것(1번부터 5번 경전철까지 상하행선)을 위하여 선제 탐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금번 11월 중순경 서울시에서 면담 시 개성해 중개역 간역차 요구사항

다. **질문 ▶북서울공의 숲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민원사항, 사고현황 및 구청의 대책과 관내 장애인 보행로 현황과 개선계획(구본승 의원)**

답변 ▶서울시 자전거 관리부서와 우리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결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램프 62m를 제거하였으며, 램프가 남아 있는 일부 구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한유도봉 2~3개씩 설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보행로 불편한 횡단보도 및 보도 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우이령 터널이 개통 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빨개방-중앙비보관소 이전대책(이성희 의원)

답변 ▶우이령 터널은 양주시가 추진하는 우이령에서 양주시 잠곡면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시 우리구 정족산도로에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교통량 수용이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우리구도 추진의사가 없으며

대체 검토안으로는 우이령 교통정체 현상 주변인 인수천과 백운천의 합류 부근에 주차장 부지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차장 및 공원을 6,000㎡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상 부지 중 1,300㎡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관리과 차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질문 ▶소의계약은 강북구내에 소재한 업체에 우선권을(박문수 의원)

답변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계약 성취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내에 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문 ▶지리 소상인들의 상권보호 대책 및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간접구제 시행계획과,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촉구 서한 전달 계획(최선 의원)

답변 ▶중공시장에 일박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직접 피해가 미치는 상인 사자 조배 수사공과등을 중심으로 스



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구적인 대책마련 및 일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물류센터, 공동이용방안 강구, 공동통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강북구 소상공인연합회 결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질문 ▶도봉사무서 뒤편 설치된 시설물 치우고 환원 가능한지(이준승 의원)

답변 ▶큰마로길 특화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화거리 조성 후 이 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사항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마련이나 계획에 대해(구본승 의원)

답변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도로명주소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였는지(이백균 의원)

답변 ▶우리구의 부여된 전체 도로명은 도당 15개, 길명 603개, 있으며그 중 도로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고 상안로의 7개 도로는 자치구간 연결도로로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였으며, 나머지 수유로와 4개 도로와 길명 603개는 우리구에서 결정·고시했다.

“상안로”는 성북구 길명들을 기점으로 우리구를 관통하여 우이령에서 끝나는 자치구간 연결도로에 해당되어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한 도로다.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의견수렴은 상안로를 포함하여 자치구간 연결도로는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 동안 있었고, 우리구에서 결정한 수유로 등 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5월 9일

까지 14일간 구 홈페이지, 구보, 구청 게시판, 각 동주민센터에 게재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질문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계획과 방안(박성일 의원)

답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과 설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난 9월 20일에 케이블카 허용길이 2km에서 5km로, 정류장 간격을 9m에서 15m로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범규칙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우리구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겠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율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결과가 발표되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질문 ▶상암동종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에 대해(이영실 의원)

답변 ▶상암동 종합복지센터는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철저한 지도와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약속 프로그램 수급자가 다 문화센터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근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등을 비교하여 조정하도록 위탁운영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질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무료지원 확대방안에 대해(김동식 의원)

답변 ▶월 건강보험료 8,000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강북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300여 가구에 대하여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다.

질문 ▶서울특별시 방화의 우이천변에 화장실 설치 여부(방정호 의원)

답변 ▶공사중인 우이천이 자연형 친환경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는 내년 봄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와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화장실설치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질문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가능 시설(보건지소 내지 본소)설치요구에 대한 구청 입장과 세부추진 현황에 대하여(구본승 의원)

답변 ▶미아동 복합청사에 보건 본소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업변경과 투자금에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은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공간조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질문 ▶강북구의 혁신학교 유치(구본승 의원, 최선 의원)

답변 ▶현재 혁신학교의 운영·지정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바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급변중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기본계획서와 시달될 것으로 사료되며

강북구도 이러한 혁신학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혁신학교 강북구 유치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으며, 혁신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학부모,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질문 ▶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최선 의원)

답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중에서 인권전담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없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나, 많은 제정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정책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별정직 임용연령 박문수 의원발의로 개정



강북구의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연령을 제한하는 조례가 구의원의 발의로 개정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제146회 임시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안건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상한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기준을 규정하고 현행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심의에 나간 최선 의원(민중노동당)은 “조례개정을 위해 발 빠르게 구청이 대응해 개선해야 했다”고 주장했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김용국 의원)와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비율(이준승 의원),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수단 봉직급의 차이(김도현 의원) 등에 대해 집행부에 불기 도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통과 후 5일 본회의를 통과해 의원발의조례로 기록된 박문수 의원은 “별정직공무원들의 임용연령을 보다 개방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박문수위원이 의회를 매일 출근하며 공부하며 발의 개정된 조례로 공부하는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